전남 서부권

수협 영광굴비 판매 갈등

상인들 "조기 가격 올라 피해 커" 중단 요구

수협 "수십년간 해 왔던 일…중단은 불가능"

영광지역 굴비 상인들과 수협·농협이 굴비판매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영광 굴비특품사업단과 법성면 번영회, 굴비 상인들은 지난 8일과 13일 2차례 법성면 진내리 영광군 수협 앞에서 '영광수협 굴비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해야 할 수협이 오히려 굴비 장사를 해 조합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수협조합 말고도 지역 농협조합(굴비골 농협)도 굴비를 판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굴비판매 중단과 함께 연간 조기 매입량과 자금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굴비판매 갈등은 영광수협이 감사 선거에 출마한 굴비 생산업자를 '실질적 겸업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투표 당일 등록무효 결정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굴비특품사업단 강행원 단장은 "굴비판매 중단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는데 최근에 수협이 많은 양을 수매하면서 조기 원물가 가격이 턱없이 올라 상인들의 손해가 크다"면서 "조합원들이 생계 수단인 조기를 직가공해 판매하는 것 자체가 협동조합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낼 계획이다.

이러한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한해 6억9000만원 상당의 굴비를 팔아온 굴비골 농협은 굴비를 팔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굴비골농협 관계자는 "정관에 따르면 조기를 가공·판매할 수 있지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고 조합원과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굴비를 팔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광군수협 측은 굴비판매는 수협의 경제사업의 하나로 수십년 동안 판매해왔던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수협 관계자는 "수협은 연간 48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연간 50억~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개인 사업자도 많은 상황에서 생산업자들과 수협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성포 일대 480여개 굴비 상가에서는 한해 400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일석이조' 진도 숲가꾸기 사업

진도군 숲가꾸기 사업 공공 근로자들이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톱밥과 우드칩으로 가공하고 있다. 군은 톱밥과 우드칩을 축산농가 등에 판매해 1억원의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농번기 일손 돕고 재범 방지"

해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농촌 투입 호평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재판 받은 대상자들이 농번기철을 맞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있다.

해남보호관찰소(소장 황창현)는 지난 11일 부터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에 투입하고 있어 농민들과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은 강진군 성전면 농가에서 폭설로 인해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고 농작물을 옮기는 등 일손을 도왔으며, 이달 말까지 총 10여 농가의 일을 도울 예정이다.

황창현 소장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는 대상자의 재범방지 효과가 크고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 봉사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봉사집행 방안으로, 향후에도 농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인력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언제라도 가까운 농협중앙회 군 지부나 단위농협을 통해 보호관찰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친서민·찾아가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4월 고령·저소득 농가에 일손을 돕기로 하는 등 사회봉사자의 농촌지원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새 얼굴

"과학조사로 사고 제로해역 만들것"

김삼열 목포 해양안전심판원장

"관할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 제로(zero) 해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한 김삼열(57) 목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조사·심판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에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김원장은 목포 지방항만청 선원선박과장과 국토해양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장,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해남 '땅끝 햇살' 친환경 쌀로 재배

해남군 "브랜드 우위 선점·수도권 학교 납품"

해남 대표 브랜드 쌀인 '땅끝 햇살'이 친환경 쌀로 옷을 갈아입는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 벼로 재배, 출하하던 땅끝 햇살을 올해 친환경 인증 벼로 전격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올해 농가와 약정된 1300ha, 5443t 중 47.7%인 2600t이 친환경 쌀로, 나머지 52.3%는 농식품부 선정 '전국 고품질 쌀 최고 12'에 꼽힌 '한눈에 반한 쌀'(2800t)과 추석 전 출하할 수 있는 조생종 쌀(43t)로 각각 생산한다.

이처럼 친환경 쌀 브랜드화를 추진한 것은 전국 쌀 브랜드 홍수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원활한 친환경쌀 계약재배, 수도권 학교 친환경 쌀 공급 등을 위해서라고 군은 설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친환경 쌀 최대 판매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光州日報 전남서부취재본부
(061-278-8111)
목포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함평 해남
본부장 정은조 국장
임영춘 부국장
조완남 부장
박현영 부장
이상선 부장
박희석 차장
조익상 기자
황운학 기자
김민준 기자
김병관 기자

목포항 물동량 증가세

건설자재 줄고 자동차 늘어…전년보다 0.7↑

목포항 물동량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3월 현재 전년 동기 같은 수준을 보이면서 올 한해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정창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68만 5000t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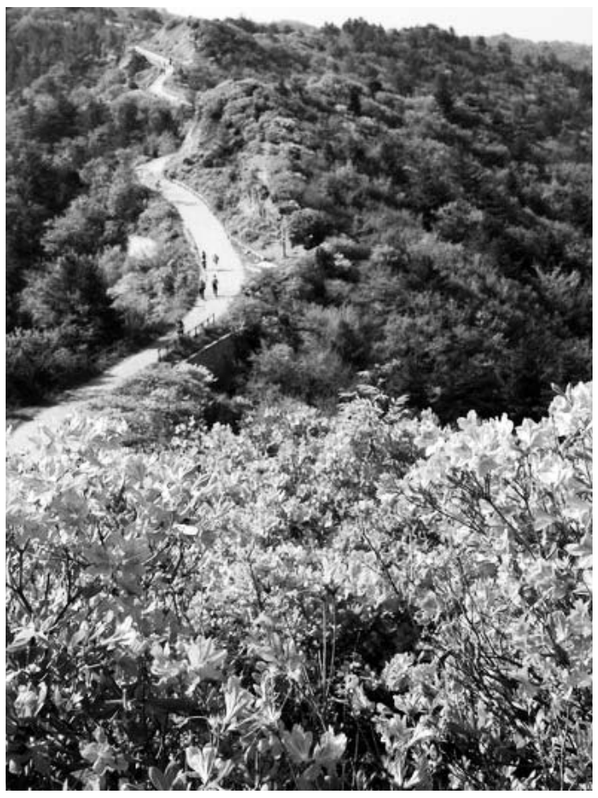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자재 수요 감소로 모래, 시멘트 등의 화물은 줄었으나 자동차 수출화물이 대폭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화물별로는 모래가 2010년 동기 실적대비 22% 감소한 19만t, 시멘트가 14% 감소한 18만t으로 나타났다. 목포신항 수출화물인 자동차화물은 77% 증가한 5만6000대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컨테이너 물량은 6000TEU(1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물동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포트세일즈(Port-Sales) 등 항만홍보 강화를 통해 10% 이상의 물동량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채석장옆 부안주민은 괴로워

배메산 이어 석산 신규개발…소음·먼지 고통 강력 반발

부안군 주민들이 '돌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14일 부안군에 따르면 현재 정일산업과 염창산업 등 2개 업체가 주산면과 보안면 일대에 있는 배메산 총 28만여㎡ 면적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주민들은 오가는 트럭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배메산 기존 석산(石山)과 인접한 곳에 신규로 7만여㎡에 대한 석산 개발신청이 지난해 10월께 부안군에 접수됐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도 방수제축조 등을 이유로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일대 임야 22.8ha에 대해 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메산 인근 주민들은 "석산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군수와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계화면 주민들 역시 의복리 석산 개발대책위를 구성해 석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물피해에 대한 즉각 피해보상과 주민소득사업 지원, 인력창출 등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시는 석산개발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박노수(78· 주산면)씨는 "석산으로 인해 폭파소음과 먼지 날림으로 10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군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어 지금은 포기상태"라며 "신규 석산허가에 대해 2차례의 마을회의를 열어 주민이 자포자기 상태로 동의서를 써 주었지만 이장과 다른 부락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석산 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배메산 석산 신규개발에 대해 부안군과 석산 개발사인 (유)SM개발은 전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연기를 요청해 현재 인·허가 처리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측은 지난 6일 김호수 부안군수를 면담하고 석산개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으나, 석산 개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주민과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방수제 공사를 위해서는 석산 개발이 꼭 필요한 만큼 올 상반기 이전 방수제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역주민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주민요구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道 '해양스포츠제전' 부안 유치 활동

전북도는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축제인 '제7회 해양스포츠제전'를 부안군에 유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개최 예정지인 부안군과 대회유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해 이달중에 국토해양부에 유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향후 타 시·도에서도 유치 신청이 예상되므로 부안군과 협력해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전은 선수와 관람객 등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요트 등 정식종목 5개와 번외종목 4개, 다양한 체험종목 등이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달말까지 연장

정읍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 12일 현재 1359 농가가 신청했으며 면적은 743ha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논 소득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 2010년 벼를 식재했던 논에 콩, 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구제역·AI 방역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연장했다"고 밝혔다. 문의(063-539-6222)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 직원대상 역사기행 실시

전주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및 역사기행을 실시, 지역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내 고장 전주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역사기행은 전주시 관내 지역 곳곳에 살아 숨쉬는 유적지와 문화유산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오는 22일에는 전북대 하태규 교수가 동행, 임진왜란 당시 이정란 의병장의 공적을 기려 세운 사당 충경사와 남고산성을 답사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남원 '청소년 문화존' 16일 개막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청소년 문화존'이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남원 관광단지 사랑의 광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청소년 문화존'은 청소년의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청소년 문화존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환경콘서트, 3종 스포츠게임 등 다채롭게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봄 흐드러진 바래봉으로 오세요"

남원시 28일~5월 23일 '철쭉제'

국내 최대의 철쭉 군락지인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오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운봉읍 허브밸리내 철쭉 군락지 일원에서 개막된다.

운봉애향회 주최로 열리는 바래봉 철쭉제는 운봉면 양목장체험과 토피어리 정원, 토속음식점 장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 바래봉(1165m)은 해마다 5월이면 산 전체가 진홍 물감을 풀어놓은 듯 끝없는 철쭉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3~4km에 이르는 군락지가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고 정상부 등산로 능선을 따라 단계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해 5월 내내 철쭉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바래봉은 고리봉(1304m)과 세걸산(1198m) 등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세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최대규모의 철쭉 군락지(100ha)가 형성돼 매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간다. 남원시 관계자는 "혼잡을 피하고 멋진 풍경을 감상하려면 주말보다는 평일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고창 오거리당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고창군은 풍년농사와 주민안녕을 기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당산제인 고창오거리당산제와 당산(돌기둥)에 대해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오거리 당산은 1803년 고창읍내 정중앙에 세워진 1.8m의 돌기둥으로 미륵신앙과 마을을 수호하는 상징물로 여겨지며, 1969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제14호)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정월대보름에 이 당산의 신령에게 제례를 올리는 당산제를 연행한다. 당산제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도 있었으나, 1981년 주민들이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를 구성해 전승 보전하고 있으며 2007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7호)로 지정됐다.

고창군은 "문화유산의 전승 발전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당산제의 역사성, 예술적 가치, 독창성이 뛰어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하다"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에는 향토사학자, 교수, 전문가가 참여해 오거리당산에 대한 지리학, 민속학, 금석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해 가치를 재조명한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